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

박정화¹, 정수경^{2*}

¹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²우송대학교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Empathy,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eong Hwa Park¹, Su Kyoung Chung^{2*}

¹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Health and Welfare, Woos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D시에 있는 4년제 2개의 간호대학에 다니는 간호학과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2014년 9월부터 한 달간 조사하여 212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기술통계,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임상수행능력은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 < .01$).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소통능력과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으며($F=37.010, p < .001$) 이들의 설명력은 26.2%였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좋을수록($\beta=.384, p < .001$),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beta=.283, p < .001$)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능력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elf-esteem, empathy,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competency, and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The data was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from 212 nursing students who were 3rd and 4th years in 2 nursing universities in Daejeon, September 2014. Data was analyzed using Pearson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IBM SPSS 21.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found among self-esteem, empathy,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result of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indicates that communication skill and self-esteem ($F=37.010, p < .001$) predicts 26.2% in clinical competency. The most powerful predictor was communication skill($\beta = .384, p < .001$), next one was self-esteem($\beta = .283, p < .001$). In conclusion, to enhance clinical competency for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utilize a program that enhances communication skill and self-esteem.

KeyWords : Self-esteem, Empathy,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 간호사의 역할은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간호업무 수행으로 변화하고 있으며[1],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간호대학생들에게 간호지식과 임상술기 뿐만 아니라 전문직 태도를 포함하여 졸업 후 곧바로 실행 가능한

임상수행능력을 가지도록 대학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교육을 통해 총체적인 간호 지식과 실무를 통합할 수 있는 임상수행능력을 기르게 된다. 기본간호술을 적용해보고 문제해결능력을 익힐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능력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가치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기본 능력을 갖추게 된다[2]. 최근 빠르게 변하고

*Corresponding Author : Su Kyoung Chung(Woosong Univ.)

Tel: +82-42-630-9293 email: skyoung1@wsu.ac.kr

Received October 1, 2015

Revised (1st October 27, 2015, 2nd October 29, 2015)

Accepted November 6, 2015

Published November 30, 2015

있는 첨단 의료 환경과 간호대상자의 요구 수준의 변화 또한 우수한 간호인력 즉, 우수한 임상수행능력을 가진 간호사 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간호대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임상수행능력이란 임상 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판단, 기술을 보여주고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3]. 간호대학생들이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행해야 하는 필요한 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환자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4].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간호대학생들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하여 간호문제 파악과 간호중재, 의료인과 환자와의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등 임상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최근 임상실습교육은 과거보다 복잡해진 첨단 장비와 의료수준의 변화 및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좋은 간호를 받을 권리 등 다양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과거보다 교수자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감을 주고 있다. 또한 임상실습의 교육영역이 지식영역뿐 아니라 임상술기와 전문직 태도까지를 포함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지식과 임상술기에 집중하던 실습교육과정을 넘어서서 전문직간호사로서의 태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기 위한 전략과 방법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신규간호사를 담당하는 프리셉터들은 신규간호사들이 의사소통, 팀워크, 정신운동기술, 환자사정기술, 비판적 사고, 시간분배 등에서 임상수행능력이 부족하며 이들의 임상수행능력이 간호 서비스 요구도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하게 제공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5]. 이중 의사소통능력은 의사소통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으로[6]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직종의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환자의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간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간호사에게는 매우 중요한 역량이다[7]. 간호대학생들에게 의사소통능력은 다양한 간호 상황 속에서 대상자와 관계 형성, 같은 실습 조원들과의 관계, 문제해결, 실습목적에 도달하는데 있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역량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소로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을 들 수 있다[8].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은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9],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의 향상됨으로써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된다[10].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스스로를 능력이 있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와 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 하는 태도를 말한다[8]. 이러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의 경우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낙관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11]. 또한,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내적 경험인 주관적 감정이나 심리상태를 ‘마치 나의 것처럼’ 이해하고 느끼며 의사소통 하는 것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12].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타인에 대해 공감을 더 잘 한다고 하였다[8] [13]. 이는 의사소통능력의 기술적 측면인 공감과 개인 내적 측면인 자아존중감의 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9][15][16].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함양해야 하는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그리고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 변수들의 영향력이 규명된다면 임상에서 요구하는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전문직 태도’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그리고 의사소통능력 등의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비판적 사고성향[17][18] [19][20], 문제해결능력[17][20], 의사소통능력[21], 감성지능[20][22], 셀프리더십[19], 자기효능감[22], 자아탄력성[19][23], 전문직 자아개념[18] 등과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등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자아존중감, 공감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사소통능력[14]은 간호대학생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간호역량[14] [24]중의 하나이지만 의사소통능력이 임상간호수행능력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미미하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25]에서는 한국의 간호대학생이 졸업 시 갖춰야 할 주요 간호역량으로서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치료적 의사소통술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수행능력과 의사소통능력 간의 연구가 거의 없다는 것은 아직도 간호교육 현장에서는 임상수행능력을 기술적인 능력이라고 단편적으로 인식하거나 의사소통능력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의 연구 결과에 더해 임상수행능력과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와 이에 영향을 주는 추가 변인으로서 자아존중감과 공감능

력에 대한 규명을 통해 더 정교한 이해가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제공자와 간호대상자간의 관계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직 태도 측면의 역량이라 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그리고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수행능력 관계에 대해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연구대상은 대전지역 2개의 4년제 간호대학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3, 4학년들을 대상으로 2014년 9월 한 달간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렸다. 또한 수집된 자료가 익명으로 처리되고 연구목적외로 사용될 것임을 서면으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 설문

지는 2인의 연구원에게 설문지 조사에 대해 교육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도록 하였다. 배포한 240부의 설문지 중 227부를 회수하였으며 불충분한 자료 15부를 제외하고 총212부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Cohen's G-power calculation Version 3.1.7 에 의하면, 회귀분석시 예측변수 최대 10개인 경우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medium)에서 검정력 .80을 유지하기 위한 각 집단의 표본수는 172명으로 계산되어 각 집단의 대상자수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 연구도구

2.3.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스스로를 능력이 있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와 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 하는 태도를 말한다[8].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Rosenberg[26]가 개발하고 Jon[27]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 5문항, 부정적 태도 5문항,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5이었다.

2.3.2 공감능력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내적 경험인 주관적 감정이나 심리상태를 '마치 나의 것처럼' 이해하고 느끼며 의사소통 하는 것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12]. 본 연구에서 공감능력은 Davis [28]가 제작하고 Jeon [29]이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했을 마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0문항으로 긍정적 24개 문항과 부정적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eek [3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7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5로 나타났다.

2.3.3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의사소통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으로[6], 본 연구에서는 Lee 등[31]이 대학생용으로 개발한 의사소통능력 진단 도구로 해석능력, 역할수행능력, 자기제시능력, 목표설정능

력, 메시지 전환능력의 총 5개 능력요소로 구성되고, 이는 다시 7개 하위요소, 해석능력-정보수집, 경청, 역활수행능력-고정 관념적 사고극복, 창의적/개방적 의사소통, 자기제시 능력-자기 드러내기, 목표설정 능력-주도적 의사소통, 메시지 전환능력-타인관점 이해로 각각 7문항씩 총 4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3개 문항은 응답의 편중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정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49점에서 24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α .84였다.

2.3.4 임상수행능력

임상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판단, 기술을 보여주고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3]. 본 연구에서는 Lee 등[32]이 개발하고 Choi [33]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교육/협력관계 8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인 총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α 값은 .96이었고, Choi [3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2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5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1 vers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를 실시하였고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간호학과 학생은 총 212명이 포함되었으며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3학년, 4학년이 각

106명(50.0%)이었고 여학생이 195명(92.0%), 남학생이 16명(7.5%)이었다. 나이는 20-42세였으며 평균 21.8(± 2.37)세였다. 경제적 상태는 중 149명(70.3%)이 제일 많았으며, 하 37명(17.5%), 상 24명(11.3%) 순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56명(26.4%)으로 제일 많았고 천주교 24명(11.3%), 불교 21명(9.9%) 순이었다. 의사소통 관련과목 수강경험은 206명(97.2%)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6명(2.8%)가 수강경험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전공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 40명(18.9%), '만족한다' 99명(46.7%), '보통' 63명(29.7%), '만족하지 않는다' 8명(3.8%),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2명(0.9%) 순이었다. 실습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 28명(13.2%), '만족한다' 97명(45.8%), '보통' 78명(36.8%), '만족하지 않는다' 9명(4.2%),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0명(0.0%)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12)

Variables	Categories	n(%)	Mean
Grade	3rd	106(50.0)	
	4th	106(50.0)	
Gender	Female	195(92.0)	
	Male	16(7.5)	
	No answer	1(0.5)	
Age(years)	<24	194(91.5)	21.8(± 2.37)
	24-26	14(6.6)	
	27-30	2(0.9)	
	31<	2(0.9)	
Economic status	Low	37(17.5)	
	Middle	149(70.3)	
	High	24(11.3)	
	No answer	2(0.9)	
Religion	Christianity	56(26.4)	
	Catholicism	24(11.3)	
	Buddhism	21(9.9)	
	Not applicable	111(52.4)	
Experience of taking 'Communication skill' course	Yes	206(97.2)	
	No	6(2.8)	
Satisfaction in nursing science	very dissatisfied	2(0.9)	
	Dissatisfied	8(3.8)	
	Common	63(29.7)	
	Satisfied	99(46.7)	
Satisfaction in nursing science practicum	Very satisfied	40(18.9)	
	very dissatisfied	0(0.0)	
	Dissatisfied	9(4.2)	
	Common	78(36.8)	
Grade point average	Satisfied	97(45.8)	
	Very satisfied	28(13.2)	
	> 4.0	28(13.2)	
	4.0-3.6	63(29.7)	
Grade point average	3.5	36(17.0)	
	3.4-3.0	67(31.6)	
	< 2.9	18(8.5)	

3.2 간호대학생의 자기존중감, 의사소통능력, 공감능력과 임상수행능력 정도

간호대학생의 자기존중감, 의사소통능력, 공감능력과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Table 2와 같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17점부터 52점까지였으며 평균 24.1(±3.17) 점, 4점 척도로 측정된 문항별 평균 점수는 2.3(±0.26)점이었다. 의사소통능력은 120점부터 205점까지 나타내었으며 평균 160.7(±13.72)점, 5점 척도로 측정된 문항별 평균점수는 3.3(±0.28)점이었다. 공감 능력은 81점부터 124점까지 나타내었으며 평균 102.9(±8.91)점, 5점 척도로 측정된 문항별 평균점수는 3.4(±0.30)점이었다. 임상수행능력은 92점부터 224점까지 나타내었으며 평균 157.4(±19.1)점, 5점 척도로 측정된 문항별 평균점수는 3.5(±0.42)점이었다.

Table 2. The descriptive values of main variables (N=212)

Variables	Min	Max	Mean±SD	Item mean±SD
Self-esteem	17.0	37.0	29.4±4.30	3.1±0.48
Empathy	81.0	124.0	102.9±8.85	3.4±0.29
Communication skill	120.0	205.0	160.5±13.70	3.3±0.28
Clinical Competency	204	215	157.2±18.11	3.5±0.40

3.3 주요변수와 임상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

주요변수와 임상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임상수행능력은 나이($r=.097, p=.157$)와 성적($r=-.128, p=.063$)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임상수행능력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343, p<.001$)를 나타내었으며 공감능력($r=.379, p<.001$) 및 의사소통 능력($r=.428, p<.001$)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3. Correlation with main variables

Variables	Self-esteem	Empathy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y
Age	.069 (.319)	-.031 (.653)	-.120 (.080)	.097 (.157)
GPA	-.229 (.001)	-.139 (.043)	-.103 (.136)	-.128 (.063)
Self-esteem		.006 (.936)	.157 (.022)	.343 (<.001)
Empathy			.359 (<.001)	.379 (<.001)
Communication skill				.428 (<.001)

3.4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임상수행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의사소통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4).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7.010, p<.001$).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다중공선성을 진단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의 최대가 .975, VIF는 1.025로서 독립변수 간의 상관이 문제가 될 정도로 높지 않았고, Dubin Watson의 잔차 분석 검정결과는 1.925로서 2에 가까우므로 모형의 오차항간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잔차와 등분산성, 정규분포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소통능력 및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가 임상수행능력의 26.2%를 설명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좋을수록($\beta=.384, p<.001$),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beta=.283, p<.001$)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Factors associated with clinical competency

Variables	B	SE	β	t	Adj. R2	F(p)
(Constant)	.974	.300		3.243 ($p=.001$)		
Communication skill	.550	.086	.384	6.378 ($p<.001$)	.183	37.010 ($p<.001$)
Self-esteem	.236	.050	.283	4.702 ($p<.001$)	.262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중재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먼저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평균 3.1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Lee와 Chung[7]의 연구결과 2.94점과 Suliman과 Halabi[34]의 연구 2.99점보다는 약간 높지만 보통 수준을 나타내었다. Wafika와 Jehad[35]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개인의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반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새로운 경험에 대해 수용적이며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해 확신감을 갖도록 돕는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자기 이해를 통한 자기 자신의 수용과 함께 자아존중감을 실제적으로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하겠다.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3.4점이었으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을 측정한 Yang 등[36]의 연구에서 3.5점, Peck [30]의 연구에서 3.7점과도 유사한 결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간호사와 비슷한 수준인 보통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3점이었다. Lee와 Gu [21]의 연구에서 3.47보다 다소 낮은 결과이며, Lee와 Chung [7]의 연구결과 3.73점보다 낮은 점수이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의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연구대상자인 4년제 대학의 3학년이 50%로서 실습경험이 1학기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평균은 3.5점으로 나타났다. Kim[23]의 연구에서의 3.3점보다도 높게 나타났으나 Choi[37]의 3.58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평가와 관련하여 임상수행능력이 강조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 대부분의 병원에서도 실무능력평가로 취업이 결정되는 시대적인 영향에 따라 간호교육 현장에서도 간호대학생들에게 병원실습현장에서 부족한 간호술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한 대안적 실습교육을 적용하거나 임상실습 중에도 과목별로 핵심술기를 평가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한 결과에 따라 다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자가보고한 임상수행능력 점수가 중간 정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임상실습환경 변화로 인한 관찰 위주와 단순영역의 기술적 분야에 치중하여 간호대학생들이 실제로 기본간호술을 경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사료된다. Song과 Kim[38]은 간호학 임상실습 교육의 실태조사연구에서 임상실습 교육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병원이 간호학생의 실습교육이 아니고 환자의 치료와 간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간호교육을 강제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와 병원 모두의 협조와 노력이 요구된다.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임상수행능력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eo [39]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임상수행능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r=.34, p<.001$)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로 간호대학생에게 자아존중감이 임상수행능력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연구 중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유사연구인 Yang 등[36]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이 약한 양의 상관관계($r=.189, p=.001$)를 보인 것과는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와 Gu [21]의 연구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 임상수행능력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수행능력이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r=.404, p<.001$)와 일치하였다.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사의 핵심역량 중의 하나로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이며 궁극적으로 임상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는 영향요소이므로 간호대학생의 자기 이해능력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교육하여 임상수행능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의사소통능력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18.3%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사실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본 연구는 미미하여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Song, Kim과 Yu [40]과 이 간호학생의 기본간호수행능력에 의사소통이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이들도 의사소통이 전문직 능력으로서 의사소통능력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Boschma 등[41]은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술이 전문직 역량 중 가장 기본적이고 주요한 역량으로 학부 동안 교육과정에서 개발되고 강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Lee, Kim, Jeong과 Moon[42]의 연구에서도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간호역량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을 들어 간호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을 제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의사소통능력이 임상수행 능력에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대학생동안 의사소통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지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 전공 이론이나 실습 과목 세부영역에서 의사소통이 중요한 과정으로 언급하기는 하나 전공수업에 밀려 정규 과목 편성으로 되어 있지는 않는 형편이다. 따라서 의사소통능력과 관련하여 이를 향상시키거나 개발하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 평가 방법과 피드백 등 어떻게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나갈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 공감능력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감능력은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주요한 요인으로서 공감을 잘할수록 대인관계를 잘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긍정적 대인관계를 형성한다는 Chung[14]의 연구의 맥락에서 볼 때 임상수행능력에서도 주요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공감능력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워 비교하기 어려워 공감능력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기 자신과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감성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잘 조절할 줄 아는 능력으로 감성지능을 활용한 Yang[22]의 연구결과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Yang[22]의 연구에서는 감성지능이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내적 경험인 주관적 감정이나 심리상태를 마치 나의 것처럼 이해하고 느끼며 의사소통하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지는 않아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Seo [3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자아존중감은 의사소통능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환자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 쉽다 [43].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건강한 대인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6]. Pai와 Ahn [44]은 정신간호학실습 성적에 자아존중감이 의사소통 기술점수와 함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제시하였는데 결

국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에 있어 중요하며 간호가 대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출발한다고 할 때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발달단계 상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로 넘어가는 대학생에게 특히 중요하다[26]. 최근 대학생의 효과적인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해서 개인의 자아존중감 증진과 더불어 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의 적용을 통해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인 개입에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16].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 경험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임상수행능력 중 간호제공자와 간호대상자 간의 관계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므로 연구결과 해석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편의표집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며, 임상수행능력에 대해 자가보고형 자료를 이용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확대 적용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중 간호제공자와 간호대상자 간의 관계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임상수행능력은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 < .01$).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소통능력과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으며($F = 37.010$, $p < .001$) 이들의 설명력은 26.2%였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좋을수록($\beta = .384$, $p < .001$),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beta = .283$, $p < .001$)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관련 정규과목의 편성에 대한 검토, 교과목 내용 개발, 평가도구 개발 및 피드백과 이에 따른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간호대학생 동안 긍정적 경험을 제공하여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References

- [1] J. W. Distler, "Critical thinking and clinical competence: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of student-centered teaching strategies in an advanced practice nurse curriculum",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 7, No.1, pp. 53-59, 2007.
DOI: <http://dx.doi.org/10.1016/j.nepr.2006.08.003>
- [2] T. Casey, E. Wilson-Evered, "Predicting uptake of technology innovations in online family dispute solution services: An application an extension of the UTAUT",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28, No. 6, pp.2034-2045. 2012.
DOI: <http://dx.doi.org/10.1016/j.chb.2012.05.022>
- [3] C. Barrett, F. Myrick,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he precepte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27, No. 2, pp. 364-371. 1998.
DOI: <http://dx.doi.org/10.1046/j.1365-2648.1998.00511.x>
- [4] W. H. Lee, J. G. Kim, J. S. Yoo, H. K. Hau, K. S. Kim, S. M. Yim, "A study on instrument development of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Yonsei Nursing*, 13, pp. 17-29. 1990.
- [5] M. T. Hickey, "Preceptor perceptions of new graduate nurse readiness for practice", *Journal for Nurses in Staff Development*, Vol. 25, No. 1, pp. 35-41. 2009.
DOI: <http://dx.doi.org/10.1097/NND.0b013e318194b5bb>
- [6] G. S. Jeong, K. A. Kim, J. A. Seong, "The Effect of Learning Styl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ommunication Skill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3, pp. 413-422.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3.413>
- [7] S. H. Lee, S. E. Chung, "Influencing factor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steem on communication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n Contents Society*, Vol. 14, No. 12, pp. 340-348, 2014.
- [8] M. S. Chung, "The relations of self-esteem, practical performance, and practical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 18, pp. 60-68. 2009.
- [9] W. H. Kim,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Nursing Task Performance of Clinic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2002.
- [10] S. J. Lim, E. Y. Park, "Changes in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pattern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after 'Satir communication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2, pp. 151-162,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151>
- [11] S. J. Lee, J. H. Yu,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and Career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Vol. 22, No. 3, pp. 589-607, 2008.
- [12] K. M. Kim, "The effects of an empathy education program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empathic ability and self-esteem. Major in elementary counseling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1.
- [13] B. C. Park, "The methods of moral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mpathy", *Holistic Education Research*, Vol. 13, pp. 127-144, 2009.
- [14] M. S. Chung, "Relationship on Self-esteem,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Reinforcing Competence in Communica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2, pp. 332-340,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2.332>
- [15] H. S. Kim, W. J. Park, T. H. Ha, "The influencing factor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2, No. 2, pp. 229-237, 2006.
- [16] M. S. Lee, K. M. Chae,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Vol. 12, No. 1, pp. 63-75. 2012.
- [17] S. Kim, H. Nam, M. Ki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Process, and Simulation-Based Assessment of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in Pediatric Nursing",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 20, No. 4, pp. 294-303. 2014.
DOI: <http://dx.doi.org/10.4094/chnr.2014.20.4.294>
- [18] K. A. Shin, B. H. Cho,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9, No. 1. pp. 46-56. 2012.
DOI: <http://dx.doi.org/10.7739/jkafn.2012.19.1.046>
- [19] E. S. Do, Y. S. Seo,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1, No. 3. pp. 283-291. 2014.
DOI: <http://dx.doi.org/10.7739/jkafn.2014.21.3.283>
- [20] H. J. Jang, Y. K. Kwag, "Affect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9. pp. 4380-4387,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9.4380>
- [21] O. S. Lee, M. O. Gu,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6 pp. 2749-2759,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6.2749>
- [22] S. Y. Yang,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on clinical competence of the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5, No. 6, pp. 370-378, 2015.
- [23] J. N. Kim, "Affecting factors on competence of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22, No. 2, pp. 55-65, 2014.
DOI: <http://dx.doi.org/10.17547/kjsr.2014.22.2.55>
- [24] E. J. Song, "The Effects of a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on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Student Nurses in Clinical Practice",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 13, No. 3. pp. 467-473. 2006.
- [25]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Specify the college four-year term of study screening*, retrieved April, 22, 2013, <http://kabon.or.kr/kabon02/index04.php>, 2013.
- [26]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27] B. J. Jon,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a collection of treatises*, Vol. 11. pp. 107-130. 1974.
- [28] M. H. Davi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 in empathy", *The Bulletin of the Jamaican Society for Agricultural Science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Vol. 10, p85. 1980.
- [29] B. S. Je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o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2003.
- [30] E. H. Peek, "*The effects of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on cultural competence, empathy and self efficacy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2012.
- [31] S. J. Lee, Y. K. Chang, H. N. Lee, K. Y. Park.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RR2003-15-03*", KEDI. pp.1-145. 2003.
- [32] W. H. Lee, C. J. Kim, J. S. Yoo, et al. "Development of a clinical competency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for Yonsei University*, Vol. 13, pp. 17-27, 1991.
- [33] M. S. Choi,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5.
- [34] D. W. Choi, "Clinical competence according to experiences on the essential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2, pp. 184-191, 2014
- [34] W. A. Suliman and J. Halabi, "Critical thinking self-esteem and anxiety of nursing students," *Nursing Education Today*, Vol. 27, pp. 162-168, 2007.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2.184>
- [35] A. S. Wafika, H. Jehad, "Critical thinking, self esteem, and state anxiety of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Vol. 27, pp. 162-168, 2007. DOI: <http://dx.doi.org/10.1016/j.nedt.2006.04.008>
- [36] S. Y. Yang, H. N. Lim, J. H. Lee,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ompetency and Empath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1 pp. 183-193,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183>
- [37] D. W. Choi, "Clinical competence according to experiences on the essential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2, pp. 184-191,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2.184>
- [38] J. H. Song, M. W. Kim, "Study on Clinical Education for Nursing in Hospital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2, pp. 251-264,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251>
- [39] B. M. Seo, "*Factors Affecting Clinical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je University, Pusan, 2010
- [40] M. Song, E. Kim, S. Yu, "Analysis on th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basic nursing skill", *The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6, pp. 391-401.
- [41] G. I. Boschma, R. Einboden, M. Groening, C. Jackson, M. MacPhee, H. Marshall, K. O'Flynn Magee, P. Simpson, P. Tognazzini, C. Haney, H. Croxen, E. Roberts, "Strengthening communication education in an undergraduate nursing curriculum",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Vol. 7, No. 1, pp. 28-41. 2010. DOI: <http://dx.doi.org/10.2202/1548-923X.2043>
- [42] M. H. Lee, H.K. Kim, S. H. Jeong, I. O. Moon, "Effects of Task Performance Style in Nursing Management Practicum on Problem-Solving and Nursing Competency according to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7, No. 1, pp. 106-114, 2011.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1.17.1.106>
- [43] H. M. Kim, "The effect of the solution-focused group counseling on th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the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ic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 11, No. 4, pp. 518-527. 2002.
- [44] H. J. Pai & H. R. Ahn,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evaluation scor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23 No. 1, pp. 5-15, 1993

박정화(Jeong Hwa Park)

[정회원]



- 2004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0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관심분야>
정신건강, 자살예방

정 수 경(Su Kyoung Chung)

[정회원]



- 1994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0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0년 9월 ~ 현재 :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안전문화